

大山 李象靖 서찰의 편집 목적과 書節要類에 담긴 학맥의嫡傳 의식

- 『大山先生書節要』를 중심으로 -*

김기엽**

■ 국문초록

大山 李象靖의 서찰 選集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大山先生書節要』 12권 7책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大山書節要』 8권 4책이 발견된다. 止齋 鄭宗魯는 朱子 書를 편집한 李滉과 退溪書를 편집한 스승 李象靖의 전례를 따라 大山書를 取擇하여 엮었다. 정종로의 후손 鄭東轍은 「大山先生書節要跋」을 지어 『大山先生書節要』를 편집한 이가 고조부 정종로임을 밝히고, 선현을 계승하고 후대에 가르침을 베푼 정종로의 뜻을 기렸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大山書節要』는 『大山集』의 편차를 따라 서찰을 수록하였고,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大山先生書節要』는 大山書를 事體에 관한 내용과 學理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大山先生書節要』와 『大山書節要』 두 書節要 자료는 안부 인사·상대에 대한 謙辭·이상정 개인의 상황을 전하는 전·후반부를 刪削하고, 事體나 學理의 요지가 담긴 중반부의 담론을 그대로 실었다. 영남 문인이 편집한 『李子書節要』, 『退溪先生書節要』, 『大山先生書節要』는 跋文에서 서찰 선정 기준과 함께 이황의 학맥에 대한 嫡傳 의식을 공통적으로 드러내었다. 鄭焜의 『李子書節要』에 序·跋文을 쓴 鄭之鍊·李蒼秀·許薰은 우리나라의 학문이 朱熹→李滉→柳成龍→鄭經世→鄭榮邦→鄭焜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서술하였다. 한편, 鄭宗魯와 金垓이 『退溪先生書節要』 발문에서 밝힌 스승 이상정의 학맥은 李裁→李玄逸→張興孝→金誠을 거슬러 올라가 李滉과 朱熹에게 연결된다. 정동철은 「大山先生書節要跋」에서 大山書를 편집한 정종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6963)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 / E-mail: sinchay@hanmail.net

가 『朱子書節要』·『退溪先生書節要』를 편집한 이황·이상정의 뜻을 따랐다고 강조함으로써, 『朱子書節要』→『退溪先生書節要』→『大山書節要』로 이어지는 書節要 양식의 계승을 자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書節要를 편집하면서 자신의 저술로 자처하지 않으려 했던 이황·이상정의 겸양을 따르고 書節要의 체제를 본받은 것은 선현에 대한 존송과 더불어 학문의 정맥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書札, 書節要, 退溪 李滉, 大山 李象靖, 立齋 鄭宗魯

1. 머리말

서찰은 안부와 소식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¹⁾ 선현들은 실용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서찰을 통해 사상과 철학을 비롯하여 처세와 학문적 견해를 전달하였다. 서찰에 담긴 선현의 가르침과 태도를 따르고자 했던 옛 문인들은 존송하는 선현의 서찰을 選集으로 남겼다.

16세기에 李滉(1501~1570)이 朱熹(1130~1200)의 서찰을 가려 뽑아서 엮은 『朱子書節要』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서찰 選集이라 할 수 있다. 『朱子書節要』와 같은 節要의 방식으로²⁾ 이후에 이황의 서찰을 選取한 『李子書節要』와 『退溪先生書節要』, 宋時烈(1607~1689)의 서찰을 엮은 『宋書節要』,³⁾ 李象靖(1711~1781)의 서찰

1)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는 분량이나 내용에 따라 간독, 간찰, 서간, 서신, 서장, 서찰, 서한, 서함, 편지, 척독 등 다양하게 불린다.(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454-475면.) 『한국문집총간』에서 서신·서간·편지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書札’이 압도적인 빈도를 차지하고(박대현, 「한문서찰의 격식 고찰」, 『대동한문학』 31, 대동한문학회, 2009, 301~348면.) 『朱子書節要』 서문에서 이황 또한 ‘書札’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실용문을 ‘書札’이라고 칭한다.

2) 김낙진, 「이상정(李象靖)의 『퇴계서절요(退溪書節要)』 편집 방법과 목적」, 『퇴계학논집』 2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7-39면; 심대용, 「益齋 鄭焄의 《李子書節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7. 江鎔은 『通鑑節要序』에서 節要가 “節其繁而取其要”의 뜻을 밝혔다.

3) 『宋書節要』는 李宜哲이 편집한 『尤菴先生書節要集解』 필사본 20권 10冊(奎4198)과 같은 자료로 밝혀졌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 또 李宜哲이 편집한 『尤菴先生遺書集解』 필사본 2권 2冊(규장각, 古1360-23)이 있는데, 李宜哲이 1750년에 쓴 서문에 “『朱子書節疑』(宋時烈이 편찬한 『朱子大

을 엮은 『大山先生書節要』 등의 書節要類가 등장하였다.

書節要類 외에 서찰 선집의 다른 유형으로 ‘百選’, ‘書抄’라고 불리는 자료가 있다. 『朱書百選』의 체제를 따른 百選類는 1876년 李勝愚가 편집한 『宋書百選』, 구한 말에 간행된 李庭魯의 『退書百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書抄類 자료는 18세기 일본에서 스구리 코쿠수이(村土玉水, 1729~1776)가 편집하고 그의 제자 오카다 칸센(岡田寒泉, 1740~1816)이 간행한 『李退溪書抄』가 있다. 이 『李退溪書抄』는 1811년 신미 통신사를 통해 조선에 유입되어 도산서원에 소장되었다.⁴⁾ 또 송시 열의 서찰을 抄選한 자료는 『宋書抄選』⁵⁾이 발견된다.

조선에서 선대 학자의 서찰을 가려 엮은 자료 중 이른 시기의 『朱子書節要』는 후대에 등장한 書節要類 체제의 典範이 되었다. 이 『朱子書節要』를 편집한 李滉, 그리고 『李子書節要』를 편집한 鄭焜(1602~1656), 『退溪先生書節要』를 편집한 李象靖, 『大山先生書節要』를 편집한 鄭宗魯(1738~1816)는 모두 영남 문인으로 퇴계 학파에 속한다. 곧 書節要를 편집한 문인들 간에 학맥의 전승과 書節要 양식의 계승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들 영남 문인의 書節要類 중 『朱子書節要』 · 『李子書節要』 · 『退溪先生書節要』는 그동안 편집 기준, 절요 방식, 학파적 관점, 학문 정신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⁶⁾

현재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大山書의 選集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필사본 12권 7책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8권 4책이 발견된다. 영남

全篇疑)의 異稱)의 遺例를 따랐다.[放先生所編《朱子書節疑》之遺例]라고 되어 있다. 洪直弼의 『梅山集』 卷5 「性潭 宋煥箕에게 올린 서찰(上性潭宋公)」에 “文菴 李宜哲 공이 尤菴의 편지에 대한 節疑를 지었는데, 『朱子大全節疑』의 준례에 의거하여 단락을 따라 해석하였으니 우암의 문하에 공이 매우 큼니다.[文菴李宜哲作尤書節疑, 逐段解釋, 如《朱全節疑》例, 甚有功於尤門]”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를 통해 李宜哲이 ‘尤菴의 편지에 대한 節疑를 지었다’는 책이 바로 『尤菴先生遺書集解』이고 이를 증보한 자료가 『尤菴先生書節要集解』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김기엽, 「18세기 朝鮮과 日本에서 편집한 李滉 書札 選集에 대한 一考察」, 『藏書閣』 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182~212면.

5)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97集別集類)

6) 강진석, 「퇴계 《朱子書節要》 편집의 방법적 특징과 의의」, 『退溪學報』 제113권, 퇴계학연구원, 2003, 51~94면; 김기엽, 앞의 논문(2019); 김낙진, 앞의 논문(2019); 심대용, 앞의 논문(2017); 이상하, 「朱子書節要가 조선조에 끼친 영향」, 『퇴계학보』 132, 퇴계학연구원, 2012, 5~38면; 최재기,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3.

지역에서 퇴계 학맥으로서 大山 李象靖이 지닌 입지와 書節要類 양식의 계승에 주목하면, 李象靖의 서찰을 가려 뽑은 書節要類 또한 그 편집 목적과 의의를 살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산 이상정의 서찰 선집을 발굴·소개하면서 자료의 구성 및 편집 경위를 먼저 살피려 한다. 나아가 앞서 간행된 영남 지역 書節要類의 편찬 취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書節要 편집이 가진 학술적 의미와 영남 문인의 書節要類에 나타난 학적 전승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2. 大山 서찰 선집 2종의 서찰 수록 현황과 편집 경위

大山 李象靖의 서찰 선집은 현재 필사본 2종이 발견된다.(검색일: 2023년 11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大山先生書節要』 필사본 12권 7책(자료ID: 16650)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大山書節要』 필사본 8권 4책(古3648-62-983)이 있다.⁷⁾ 두 서찰 선집 자료는 書名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구성과 수록 현황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수록 현황은 본 논문 말미의 【부록】 참조)⁸⁾

『大山集』의 206인에게 보낸 620여 편⁹⁾의 서찰과 비교·대조하면, 『大山書節要』에 수록된 서찰의 차례는 『大山集』의 서찰 수록 순서와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大山先生書節要』에 수록된 서찰은 『大山集』에 수록된 서찰의 순서와 어긋난 편차를

7) 이상정의 서찰을 抄寫한 자료로 『大山先生書札抄』 1冊(49張),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자료ID: 26120)이 있었으나, 書節要類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大山先生書札抄』는 昭和 2年(1927년) 6월 1일에 발행된 잡지 《農村號》의 지면에 이상정의 서찰 내용을 목서로 베껴 놓았다.

8) 이하로 자료의 표지 書名을 따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을 『大山先生書節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大山書節要』로 구분하여 칭한다. 두 자료에 수록된 서찰의 구체적인 현황은 본 논문의 【부록】에 표로 정리하였다.

9) 『大山集』에 수록된 서찰의 수는 고전번역원DB의 한국문집총간 『大山集』 해제를 참고하였다. 이 해제에서 고전번역원DB의 『大山集』은 1802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임을 밝혔다. 수신자 206인은 형제와 같이 여러 명의 공동 수신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보이기도 하였다.

형제처럼 복수의 수신인에게 보낸 서찰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大山先生書節要』는 약 111인에게 보낸 서찰이 280여 편 실려 있고, 『大山書節要』는 112인에게 보낸 340여 편의 서찰이 실려 있다.¹⁰⁾ 『大山先生書節要』는李宗洙에게 보낸 서찰이 43편으로 가장 많이 실려 있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한 金宗德에게 보낸 서찰 16편과는 수록 비중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大山書節要』는李宗洙에게 쓴 서찰이 34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金宗德에게 보낸 서찰이 30편 수록되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大山先生書節要』와 『大山書節要』에 다수 수록된李宗洙 · 金宗德에게 보낸 서찰은 『大山集』에서李宗洙 65편, 金宗德 41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大山集』에는李宗洙와 金宗德이 수신자인 서찰 외에도 崔周鎭(17편) · 金樂行(20편)을 비롯하여, 崔興遠(1705~1786)과 그의 아우 崔興漸 두 사람이 공동 수신자로 표기된 서찰도 다수 수록되어 있어, 이들과 이상정의 긴밀한 교유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최흥원이 수신자인 서찰은 『大山集』에 44편이 수록되어 있으나 정작 『大山先生書節要』에 12편, 『大山書節要』에 15편만 실려 있어李宗洙나 金宗德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록된 서찰의 비중이 적다.

『大山先生書節要』와 『大山書節要』 모두 懶拙齋 李山斗(1680~1772)에게 보낸 서찰이 가장 먼저 실려 있다. 이상정이 이산두에게 보낸 서찰은 『大山集』에 2편이 실려 있는데, 두 書節要에 수록된 서찰은 『大山集』의 「與李懶拙齋」 2편 중 두 번째 작품이다. 『大山先生書節要』 권12에 수록된 마지막 서찰은 이상정의 아들 李垸이 질의한 『大學或問』에 대한 답변이다. 『大山先生書節要』 권12의 서찰은 朱熹와 張栻의 논의를 비롯하여 경전의 問目 등, 이상정이 문인이나 子姪과 나누었던 학문적 담론에 관한 내용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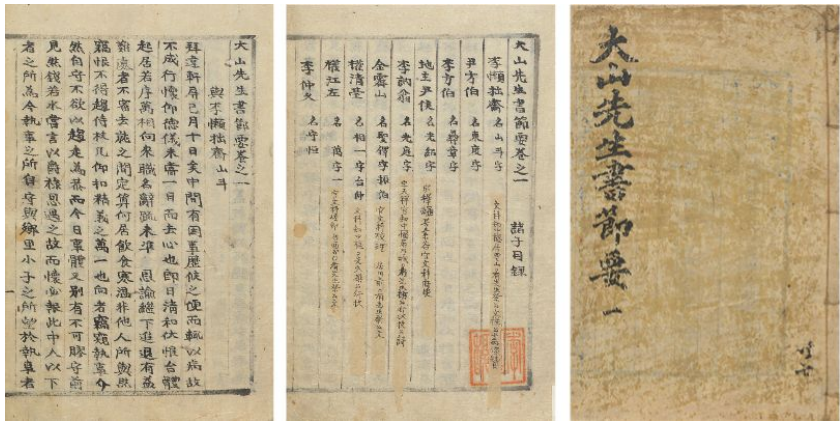
10) 한국문집총간의 『大山集』을 기준으로 볼 때, 별지와 함께 한 편으로 묶인 서찰임에도 불구하고 書節要에서는 서찰과 별지를 다른 권에 각각 나누어 수록한 경우가 있다. 또 낙장으로 추정되는 면도 있어 서찰의 편수를 대략적으로 산정하였다. 『大山先生書節要』에 수록된 서찰은 대표 수신자가 111인, 여기에 공동 수신자까지 포함하면 118인이고, 『大山書節要』에 수록된 서찰은 대표 수신자가 112인, 여기에 포함된 공동 수신자가 모두 121인이다.

『大山書節要』 권8 말미의 서찰은 이상정이 만손자 李秉運(1766~1841)에게 보낸 서찰이다. 李秉運의 초명은 李永運이었으나, 순종의 아들 翼宗(효명세자)의 본명인 李昚(영)과 일부 발음이 일치하여 이름을 부를 때 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 나중에 秉運으로 개명하였다. 『大山書節要』 권8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答孫永運」은 1780년에 이상정이 손자 이병운에게 매사에 조심하고 품행을 단속하기를 비란다는 격려와 훈계를 담은 답신이다.¹¹⁾ 한편 『大山先生書節要』에서 이병운에게 답한 서찰(「答孫永運」)은 권2의 말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길에서 배를 탈 때 조심하라는 당부를 비롯하여 손자며느리가 의복과 음식을 자신에게 보내 온 것을 손자 이병운이 금하지 않았음을 책망한 내용으로,¹²⁾ 『大山書節要』의 「答孫永運」와 다른 내용의 서찰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大山書節要』는 서문이나 발문이 실려 있지 않아 편찬자나 편찬 목적을 예단할 수 없다. 이에 발문이 삽입되어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大山先生書節要』를 중심으로 편찬 경위와 그 의의를 논한다.

11) 『大山書節要』 권8, 「答孫永運」. “汝在家不關於幼儀, 恐無以出入於君子之門. 今承主人書, 許以有成風旨, 必是汝作意修檢, 遮掩本色. 然久而情而漸熟, 懈意易萌, 須操心惕慮, 隨事畏謹, 毋使爾父祖得不教之責, 千萬望也.” 『大山集』 권38에 수록된 「答孫永運」과 같은 내용으로, 결미의 투식에 해당하는 구절인 “나머지는 잘 먹고 스스로 몸을 아끼길 바란다.[餘惟良食自愛]”는 산삭되어 실렸다.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종합DB를 참고하였다. 이하로 본고에서 인용한 『大山集』 서찰의 번역도 이와 같다.

12) 『大山先生書節要』 권2, 「答孫永運」. “聞水路不甚危, 日間出來爲望. 登船時須禁多人, 遇風則勿登, 需者事之賊, 而惟涉水以需爲貴耳. 吾殘悴轉甚, 適當劬勞之日, 孤露之感益新. 吾平生不敢置酒宴會, 汝之所知, 而汝婦委送衣服飲食, 雖不能却, 而心甚不安, 汝何不禁之邪?” 이 또한 『대산집』에 수록된 서찰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손자 李秉運과 최홍원의 손자 崔滉(1762~1807)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여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한 다음 구절은 산삭되어 실렸다. “崔滉은 教官公의 손자이다. 그가 며칠 전에 와서 열흘이나 보름 정도 머무르고자 하였는데, 내가 병으로 사직 상소를 막 올린 터라 감히 한가롭게 수작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며칠 머물다가 내일 돌아가니, 너와 만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崔生滉, 卽教官公之孫. 數昨來, 欲留旬望, 而以病疏纒上, 不敢作閑酬酢, 辭留數日, 明日當歸, 恨不使汝相見也]”(『大山集』 권38 「答孫永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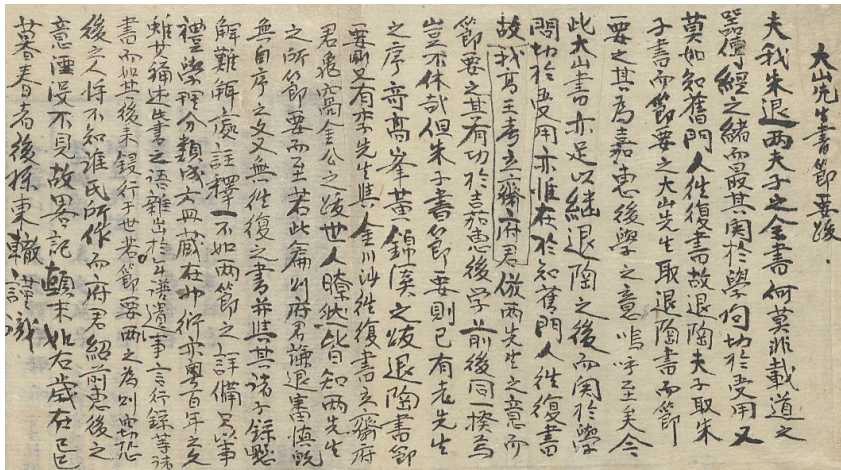
〈그림 1〉 『大山先生書節要』 권1 첫 부분(좌), 권1 제자목록(가운데), 1책 표지(우)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大山先生書節要』는 각 권수에 諸子目錄이 정리되어 있고, 이 제자목록에는 수신인의 자, 호, 이름, 거주지, 가계, 과거 급제 이력, 관력, 身後文字 작성 등에 관한 정보가 첨지로 붙어 있다. 이후의 권에 거듭 등장하는 수신인의 정보들은 첨지에 “見第○卷”으로 표기함으로써, 중복 기재를 피하고 앞 권 첨지에서 밝힌 수신인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첨지는 頭註를 대신하여 문구의 의의를 보충 설명하거나 오탈자처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행의 상단에 붙여져 있다. 각 책머리에는 韓山李氏 문중의 후손인 “李昌馥”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다.¹³⁾ 해당 諸子目錄 면에는 필사된 발문이 삽입되어 있어 편집자의 의도와 편집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위 <그림 2>의 발문 중간에 “우리 고조 입재 부군이 두 선생의 뜻을 따라서 줄이고 요약하였다.[我高王考立齋府君, 倣兩先生之意, 而節要之.]”라는 구절이 보이고, 발문 말미에 “기사년(1929) 늦봄에 후손 동철이 삼가 쓰다.[歲在己巳暮春者, 後孫東轍謹識.]”라고 적혀 있다. 이를 통해 立齋 鄭宗魯(1738~1816)가 『大山先生書節要』를 엮었고,¹⁴⁾ 후손 ‘東轍’은 쑤주(晉州)를 본관으로 하는 鄭東轍(1859~1939)임을 파

13) 경북 안동시 일직면 마항리에 있는 대산 중가의 李芳洙 종손의 도움을 받아, 소장인을 찍은 李昌馥이 李象靖의 韓山李氏 문중에서 ‘馥’ 자 항렬의 支孫임을 확인하였다.

14) 송시열의 서찰 선집 『宋書百選』의 서문 「宋書百選序」를 쓴 이도 호가 立齋인데, 이는 宋近洙



〈그림 2〉鄭東轍(1859-1939)이 쓴 『大山先生書節要』 발문

악할 수 있다.¹⁵⁾ 鄭宗魯는 愚伏 鄭經世(1563-1633)의 6대손으로 퇴계 학맥의 한 갈래에 속하고 스승 이상정이 편집한 『退溪先生書節要』에 발문을 썼던 인물이다. 정종로는 朱子書를 편집한 이항과 退溪書를 편집한 스승 이상정의 전례를 따라 大山書를 편집하였던 것이다.

문헌을 편집하여 책으로 엮어 낼 때는 서문이나 발문을 작성하여 편찬 경위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독자들은 이 서문이나 말미의 발문을 통해 편찬자와 편찬의 의의를 파악한다. 그러나 『退溪先生書節要』를 편집한 이상정이나 『大山先生書節要』를 편집한 정종로는 굳이 서문을 남기지 않았다. 이들에 앞서 朱子書를 편집한 이항 또한 생전에는 서문을 써두고 내어놓지 않아, 『朱子書節要』의 초간본에

(1818-1902)로 전혀 다른 인물이다.

15)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밝힌 수집처는 全州柳氏 定齋宗宅으로 되어 있다. 全州柳氏 문중과 발문의 작자 鄭東轍(1859-1939)의 관계를 살펴보면, 柳承景(1881-1947)과 柳承祖(1892-1946)이 柳栻(1755-1822)의 문집 『近窩集』을 간행하면서, 1929년에 鄭東轍에게 柳栻의 묘갈명을 부탁한 적이 있다. 묘갈명을 부탁받은 연도가 『大山先生書節要』 발문을 쓴 1929년과 같다는 점이 주목된다. 선대의 柳栻이 정동철의 고조부 鄭宗魯를 師事하였으니, 혼란과 사승으로 유지되어 온 두 집안의 오랜 교류를 고려할 때, 평소 서로에게 身後文字나 문집의 교정을 부탁하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편집자의 문중에서 다른 문중으로 옮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하는 『晦菴書節要』에는 서문이 누락되어 있었다.¹⁶⁾ 이황 사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서문이 발견된 뒤에야, 川谷書院에서 간행한 후대의 『朱子書節要』부터 이황의 서문이 실리게 된다.

〈표 1〉 書節要類 서문의 누락과 편집 현황

書節要類		서문	편집 및 교정	간행 시기
朱子書節要	晦菴書節要(성주본)	×	黃俊良 주도, 1556년 謄寫	1561년 ¹⁷⁾
	朱子書節要(정주본)	×	柳仲郢 주도, 1566년 교정, 增註	1567년
	朱子書節要 (천곡서원본)	○	1573년 總目 개정, 이후로 이황의 서문 편집	1575년 이후
李子書節要		○	鄭焜(1602~1656) 편집 鄭之鍊(1693~1754) 서문	1905년
退溪先生書節要 /退溪書節要		×	1741년 편집 1772년 金宗德 교정	1811년 이후 ¹⁸⁾
大山書節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미상	筆寫本
大山先生書節要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	정종로(1738~1816) 편집 1929년 鄭東轍 발문	筆寫本

자신이 편집한 書節要에 서문을 쓰지 않은 것은 서찰 선집을 자신의 찬술로 자처하지 않은 겸양의 뜻이 담겨 있다. 이에 書節要 간행 시에 제자들은 書節要를 편집한 스승의 서찰을 부록으로 신거나 跋文을 써서 스승의 뜻을 기렸으므로, 지

16) 『朱子書節要』는 처음에 『晦菴書節要』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황의 及門弟子 黃俊良(1517~1563)이 星州牧使로 있으면서 『晦菴書節要』 초간본(성주본)을 간행할 때 이황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황은 『회암서절요』를 자신의 찬술로 자처하기가 꺼려진다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定州本(1567)의 간행을 추진하던 定州牧使 柳仲郢의 서문 요청에도 역시 거절하였다.

17) 『朱子書節要』의 謄寫와 刊行 시기는 최재기, 앞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18) 李秉運이 「退溪先生書節要跋」에서 『退溪先生書節要』와 일본의 『이퇴계서초』의 체제를 비교하는 대목에, “대산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22년이 지나 일본에 갔던 사신이 玉水가 편집한 『退溪書抄』를 사 가지고 왔다.[先生易贊後二十二年, 日本行人, 購得玉水所爲退溪書抄以來.]”라고 되어 있으나, 二十二年은 三十二年의 오키로 보인다. 金履喬(1764~1832)가 간 신미 통신사행은 1811년으로 이상정 사후 30여 년이 지난 시기이다.

금의 『朱子書節要』에는 黃俊良(1517~1563)과 奇大升(1527~1572)의 발문이 실리고 『退溪先生書節要』에는 정종로와 金垸(1739~1816)의 발문이 실리게 된 것이다.¹⁹⁾

정종로는 이상정의 제자로서 『退溪先生書節要』의 발문을 써서 스승의 공을 밝혔으나, 자신이 편집한 『大山先生書節要』에는 영남 선현의 전례를 본받아 서문을 짓지 않았다. 스승의 뜻을 따라 서문을 남기지 않은 정종로를 대신하여, 후손 정동철은 아래와 같이 발문을 지어 『大山先生書節要』의 편집자·편집 경위·편집 의의 등을 서술하였다.

다만 『朱子書節要』는 이미 老先生(이황)의 서문과 高峯(기대승)·錦溪(황준량)의 발문이 있고, 『퇴계서절요』는 또 이미 李先生(이상정)이 천사 김종덕과 주고받은 서찰과 立齋 府君·龜窩 金垸의 발문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모두 두 선생이 書節要를 편찬한 것임을 안다. 그러나 이 『大山書節要』는 부군이 겸손하고 신중히 하여 이미 직접 쓴 서문이 없고 또 (편찬 시 첨삭을 논의하기 위해)주고받은 서찰도 없다. …… 단지 事體와 學理로 분류하여 여섯 책으로 만들어 巾箱에 보관되어 있었으니 …… 후대 사람들이 누가 지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선현을 계승하고 후학에게 은혜를 내려준 부군의 뜻이 매몰되어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²⁰⁾

1929년에 鄭東轍은 「大山先生書節要跋」을 지어, 고조부 정종로 또한 書節要를 편집한 이황·이상정을 본받아 大山書를 選取하여 6책으로 편집하였음을 밝혔다. 이로써 현재 남아 있는 7책은 정종로의 선집에 보완을 가한 자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 12권 7책 중에 권1~권5까지의 서찰은 대개 학문 태도나 처세에 관한 내용

19) 이상정의 손자 이병운은 『退溪先生書節要』의 간행을 주도하면서 직접 「退溪先生書節要跋」을 지었으나, 정작 간행본에는 정종로와 김굉의 발문만 수록하였다. 정종로·김굉의 발문은 현재 『退溪先生書節要』 10책 말미에 실려 있고, 이병운의 발문은 그의 문집 『俛齋集』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20) 鄭東轍, 『大山先生書節要』, 「大山先生書節要跋」, “但朱子書節要, 則已有老先生之序·奇高峯黃錦溪之跋·退陶書節要, 則又有李先生與金川沙往復書·立齋府君龜窩金公之跋, 世人瞭然皆知兩先生之所節要, 而至若此篇, 則府君謙退審慎, 既無自序之文, 又無往復之書…… 只以事體學理, 分類成六冊, 藏在巾箱 …… 竊恐後之人, 將不知誰氏所作, 而府君緝前惠後之意, 漂沒不見”

을 담았고, 권6~권12의 서찰은 經文의 問難과 논변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로 보아 전반부는 일부 問目이 섞여 있더라도 事體에 관한 서찰로 분류하고 후반부는 學理에 관한 서찰로 분류하여 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발문에서 『退溪先生書節要』에 수록되었다는 ‘李先生(이상정)이 천사 김종덕과 주고받은 서찰’은 「附大山李先生答金道彦【宗德】別紙」를 가리킨다.²¹⁾ 이 서찰은 이상정이 『退溪先生書節要』를 편찬할 당시, 삽입할 서찰의 선정 여부와 내용 산삭 기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서문이 없는 『退溪先生書節要』에서 편찬자와 편찬 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로서 서문을 대신하여 넣은 것이다.²²⁾ 이는 『朱子書節要』의 초기 간본으로서 서문이 누락되었던 『晦菴書節要』에 서문 대신 「附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를 부록으로 실었던 전례와 같다.²³⁾

21) 『朱子書節要』 초기 간본에 서문 대신 이황이 쓴 「附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를 부록으로 실었던 전례를 따라, 이상정의 『退溪先生書節要』도 서문 없이 「附大山李先生答金道彦【宗德】別紙」를 부록으로 실었다. 이 이상정이 김종덕과 주고받은 「附大山李先生答金道彦【宗德】別紙」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退溪書節要』(古3648-62-956) 10권 10책 말미에 첨부되어 있고, 그 稿本은 『大山叢書』(影印本) 권4의 『退溪書節要』 말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退溪先生書節要』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10권 10책 간본(古3648-62-956)과 10권 8책으로 구성된 간본(古367-227)이 발견된다. (검색일: 2023년 11월) 10권 8책으로 구성된 간본에는 이 「附大山李先生答金道彦【宗德】別紙」이 누락되어 있어, 10권 8책 간본을 보완한 10권 10책 간본이 이후에 보충되어 간행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김기엽(2019)은 당시 공개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367-227) 10권 8책을 저본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附大山李先生答金道彦【宗德】別紙」의 영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李象靖의 9대 嗣孫인 李芳洙를 통해 『대산전서』에 수록된 『퇴계서철요』의 저본을 확인하여 「附大山李先生答金道彦【宗德】別紙」의 의의를 밝힌 바 있다.

22) 이상정의 서찰 「附大山李先生答金道彦【宗德】別紙」를 『退溪先生書節要』에 부록으로 수록한 의도는 이상정을 師事한 廣瀨 李野淳(1755~1831)의 글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廣瀨集』 卷7, 「附大山答川沙書于退溪先生書節要卷首書其後」. “節要十卷五冊, 我大山李先生之所手編, 而其俟後來於無窮, 亦如朱節者也. 夫先生輯成如聖賢遺像齋集說制養錄諸書, 皆有自序, 而獨於此無之者無他. 節約之功, 雖出於玩珮之微意, 而序文之又據朱節, 猶嫌於自居. 故有求觀是書者, 或不隱焉, 而序則緊縮緘而留意. …… 今是書將與四方共之, 而特其表章嘉惠之蹟, 不可使捐翳. 遂謹依朱節之附老先生答李仲久書例, 爲置先生一書于卷首, 使覽者知老先生之道, 得先生而復明云.”

23) 川谷書院本 이후의 『朱子書節要』는 모두 서문을 갖추고 있고 내용이 동일하지만 소장처마다 編次에 일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초17-89)은 1책에 朱子書節要總目-『朱子書節要序』-기대승의 발문-『附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가 순서대로 실렸고, 10책 말미에 황준량의 「星州晦菴書節要跋」-기대승의 「定州刊朱子書節要跋」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1612년 묘향산사고에 반사된 장서각 소장본(K3-135)은 1책에 「朱子書節要序」-기대승의 발문-朱子書節要總目이 실려 있고, 10책 말미에 「附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황준량의 「星州晦菴

정동철은 고조부 정종로가 편집한 『大山先生書節要』에 서문의 기능을 대신할 서찰조차 남아 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스스로 발문을 지어, 『大山先生書節要』를 편집한 이가 고조부임을 밝히고 이상정의 서찰을 가려 엮음으로써 선현을 계승하고 후대에 가르침의 은혜를 베푼 정종로의 뜻을 기렸다. 서찰을 가려 엮으면서 앞서 書節要를 편집한 이항·이상정의 행적과 書節要의 체제를 본받은 것은 선현에 대한 존승과 더불어 학문의 정맥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大山 서찰의 節要 양상과 書節要類에 표출된 嫡傳 의식

1) 大山 李象靖 서찰의 刪削과 組合 양상

『大山書節要』의 서찰은 『大山集』의 편차를 따라 수록되었고, 『大山先生書節要』는 대개 권1~권5가 事體에 관한 서찰, 권6~권12가 學理에 관한 서찰로 분류되어 실려 있다. 『大山先生書節要』와 『大山書節要』의 수신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찰은 李宗洙에게 보낸 서찰이다.([부록] 李象靖 書札 選集에 실린 수신자와 서찰 현황 표에서 순번 106 참고) 이 절에서는 이상정이 李宗洙에게 보낸 서찰을 중심으로 節要 양상을 살핀다.

『大山集』에 수록된 李宗洙에게 보낸 서찰 65편 중, 『大山書節要』는 32편을 取擇하여 『大山集』의 순차대로 권5에 실었고, 『大山先生書節要』는 43편을 『大山集』의 수록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권2에 6편, 권4에 4편, 권6에 20편, 권10에 13편으로

菴書節要跋]-기대승의 「定州刊朱子書節要跋」이 수록되어 있다. 또 1743년에 간행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1252-170-50)은 1책에 「朱子書節要序」-기대승의 발문-황준량의 「星州印菴書節要跋」-기대승의 「定州刊朱子書節要跋」-「附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朱子書節要總目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같은 川谷書院본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이는 판심제에 朱子書節要附, 朱子書節要跋이라고 되어 있는 책판들을 각각 별도로 인쇄하였다가, 합철할 때 권수에 넣기도 하고 권말에 넣기도 하였으므로 편차에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각 간본별로 편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朱子書節要』의 부록에 이항이 쓴 「附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는 모든 간본에 빠짐없이 실려 있는데, 『朱子書節要』가 川谷書院本으로 재편되기 이전까지 이항의 서문을 대신하여 卷首에 실려 있었던 서찰이기 때문이다.

나누어 실었다.

『大山先生書節要』에 수록된 각 서찰의 節要 양상은李宗洙에게 보낸 서찰 43편 가운데, 권10의 答李學甫質疑 1편과 答李學甫問目 4편이 『大山集』의 서찰 내용 그대로 刪削 없이 온전하게 실렸다. 그 외의 서찰들은 다소의 산삭을 가하여 書節要에 수록하였다. 정동철이 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大山先生書節要』의 서찰은 事體와 學理로 분류·수록되어 『大山集』의 순서를 따르지 않은 편차 방식도 보였다. 예컨대 『大山先生書節要』 권6의 「答李學甫」는 『大山集』에 서찰과 별지가 한 편으로 묶여 수록되어 있으나, 『大山先生書節要』에서는 별지만 따로 나누어 권10에 「與李學甫別紙」로 배치하였다. 『大山集』에서 한 편의 서찰에 포함되었던 별지를 『大山先生書節要』에서 다른 권에 나누어 수록한 것은 事體와 學理로 분류한 결과이다.

또한 『大山先生書節要』 권10에는 李象靖이 1760년(庚辰)에李宗洙에게 답한 서찰(「答李學甫」)이 별지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 별지에 ‘愆에 대한 설(怨說)’, ‘家·國의 차이’에 관한 問目 등에 이어서 ‘可함도 없고 不可함도 없다[無可無不可]’는 문목이 덧붙여져 있다. 그러나 이 ‘無可無不可’에 관한 問難은 李象靖이 1776년(丙申)에李宗洙에게 답한 서찰의 별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편집 과정에서 일부 錯簡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大山先生書節要』에서 이상정이李宗洙(자 學甫)에게 보낸 서찰 중 科文 학습에 관해 조언한 서찰이 권2에 가장 먼저 실려 있는데, 이상정이 공부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술회한 후반부의 내용은 刪削되어 채록되었다. 『大山書節要』에서 이상정이李宗洙에게 보낸 서찰은 過恭에 대한 경계, 이종수의 성취, 공부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답한 내용으로, 모두 『大山書節要』 권5에 실려 있다. 이 「答李學甫」를 비롯한 몇 편의 서찰이 『大山先生書節要』 권6에도 순서대로 실려 있으므로, 『大山集』의 서찰을 함께 참조함으로써 두 자료의 절요 양상을 비교·대조할 수 있다.

아울러 「答李學甫」를 수록한 방식을 통해서도 두 書節要의 형식적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곧 『大山先生書節要』는 각 서찰마다李宗洙에게 보낸 서찰이라는 제목을 제시하였으나, 『大山書節要』는 여러 서찰을 별행만 두고 하나의 제목 아래 함께 나열하여 마치 한 편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大山書節要』에는 李學甫에

게 보내는 서찰의 제목이 15편 보이지만, 이 15편은 실상 34편의 서찰이 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합의 절요 방식은 이전 시기에 편찬된 書節要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⁴⁾ 아래 표는 8편이 한 제목 아래 나열됨으로써 가장 많은 서찰이 조합된 『大山書節要』의 「答李學甫」를 각각의 제목으로 수록된 『大山先生書節要』의 「答李學甫」와 비교·대조한 것이다.

〈표 2〉 『大山先生書節要』와 『大山先生書節要』의 「答李學甫」 節要 사례

1	『大山先生書節要』 권6 : (전반부 刪削) 曩者見左右資地分數, 已占得七八分. 但平時讀書, 全欠仔細, 往往看文字, 不出相對, 無大段商量, ……方是長進, 方好與人商量, 只如此鹵莽不濟事. (후반부 刪削)
	『大山書節要』 권5 : 正爾一念憧憧, 迺手滋先墜, 欣慰則有之…… 曩者見左右資地分數, 已占得七八分. 但平時讀書, 全欠仔細, 往往看文字, 不出相對, 無大段商量, ……方是長進, 方好與人商量, 只如此鹵莽不濟事, 未知近日工夫意況自覺得如何? (후반부 刪削)
2	『大山先生書節要』 권6 : (전반부 刪削) 滿幅辭意, 豈所謂蹈而後言者邪? 不然, 何其感人乃爾也? ……而見朋友如左右, 正宜視此爲戒, 若悠悠泛泛不肯果決, 安知來日之不如今日也? (후반부 刪削)
	『大山書節要』 권5 : 霎奉悠別, 有懷滔滔, 茲承手墨, 迺於千仞崗上, 區區慰想, 不但審寒溫也, 滿幅辭旨, 豈所謂蹈而後言者邪? 不然, 何其感人乃爾也? ……而見朋友如左右, 正宜視此爲戒, 若悠悠泛泛不肯果決, 安知來日之不如今日也? (후반부 刪削)
3	『大山先生書節要』 권6 : (전반부 刪削) 大抵盛論, 辭旨懇惻, 意向深遠, 似已窺尋古人之路逕, ……到此方是快活處, 方是好消息耳. 區區嚮注於足下者, 不啻如飢渴, 幸須努力加意, 灑根食實, 使交遊與有榮焉, 則何如其爲幸也.
	『大山書節要』 권5 : (전반부 刪削) 蓋天下之事, 有難斯有獲, 有實必有名. 然方事其難而遽志於獲, 未盡其實而先求夫名, 則其本心實地已索然而外馳矣. ……大抵盛論, 辭旨懇惻, 意向深遠, 似已窺尋古人之路逕, ……到此方是快活處, 方是好消息耳. (후반부 刪削)
4	『大山先生書節要』 권6 : (전반부 刪削) “心藏子和”之示, 未知所藏者何事? 所和者何聲? ……此事正自難說, 少有偏主, 便成病痛, 須知身心內外本非二致, 成已成物只是一事 ……幸以此意, 更加涵養玩索之功, 卽日用動靜之間, 亦可見矣, 未知如何? (후반부 刪削)
	『大山書節要』 권5 : (전반부 刪削) 此事正自難說, 少有偏主, 便成病痛, 須知身心內外本非二致, 成已成物只是一事……幸以此意, 更加涵養玩索之功, 卽日用動靜之間, 亦可見矣, 未知如何? (후반부 刪削)
5	『大山先生書節要』 권6 : (전반부 刪削) 竊觀賢者資地見解, 已占六七分, 使皇上傍觀, 指點評議, 無甚疵類, ……安在方寸地上, 攪擾係絆, 互相拚迫, 以害夫圓轉周流不滯之氣象哉? 此直據事而論其理如此.

24) 강진석은 앞의 논문에서 이항이 『朱子書節要』를 편집한 방법을 註解·組合·刪去·選取·保存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p>…… 其遇事差誤, 意慊悔處, 以二先生之言爲節度, 則亦庶幾其不爲病矣. 未知如何?</p> <p>『大山書節要』 권5 : (전반부 刪削) 竊觀賢者資地見解, 已占六七分, 使早上傍觀, 指點評議, 無甚疵類, ……安在方寸地上, 攪擾係絆, 互相掙迫, 以害夫圓轉周流不滯之氣像哉? (후반부 刪削)</p>
6	<p>『大山先生書節要』 권6 : (전반부 刪削) 向論“曾點底事”一段, 鄙意只謂孔子於許多門弟中, 只思幾箇狂簡, 慙慙屬望, 是甚心情? ……與夫所引朱先生語, 語意俱足, 擲撲不破, 謹當捨其餘訣, 爲區區佩用之地耳. (후반부 刪削)</p> <p>『大山書節要』 권5 : (전반부 刪削) 向論“曾點底事”一段, 鄙意只謂孔子於許多門弟中, 只思幾箇狂簡, 慙慙屬望, 是甚心情? ……與夫所引朱先生語, 語意俱足, 擲撲不破, 謹當捨其餘訣, 爲區區佩用之地耳. ……見論“一性具四德實然”處, 未深領得此義理源頭極精微處無聲形氣臭之驗, 無怪其有此也. ……切非旬日之工所可蹴到也. (후반부 刪削)</p>
7	<p>『大山先生書節要』 권6 : (전반부 刪削) 穴肩之務, 固免不得, 然卽此無非學, 卽此便是涵養地頭. ……朱先生所謂“『中庸』難讀, 非初學之急務”, 正謂此也.</p> <p>『大山書節要』 권5 : (전반부 刪削) 穴肩之務, 固免不得, 然卽此無非學, 卽此便是涵養地頭. ……朱先生所謂“『中庸』難讀, 非初學之急務”, 正謂此也.</p>
8	<p>『大山先生書節要』 권6 : (전반부 刪削) 惟是心氣之患, 倍覺添刺, 往往終宵欠睡, 竟日煩悶, 此兩日尤甚. ……始知孟子所謂“勿忘勿助”, 程氏所謂“非著意, 非不著意”者, 是用工最精細處, 非驢心淺識可擬議萬一也, 奈何奈何? 若得日親勝己, 慣聽奇偉要妙之論, 或可以娛心悅意, 減得病痛分數, 而杜門沮沒, 此亦不可得矣, 安得不馳心於同人標格邪? (후반부 刪削)</p> <p>『大山書節要』 권5 : (전반부 刪削) 象靖勞瘁未定, 感冒成疾, 鼻軌頭疼, 方擁衾自將, 然此猶是客氣外感, 數日當自瘳, 惟是心氣之患, 倍覺添刺, 往往終宵欠睡, 竟日煩悶, 此兩日尤甚. ……始知孟子所謂“勿忘勿助”, 程氏所謂“非著意, 非不著意”者, 是用工最精細處, 非驢心淺識可擬議萬一也, 奈何奈何? (후반부 刪削)</p>

두 書節要에서 서찰 내용을 刪削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록한 부분을 위 표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두 書節要 자료는 대개 안부 인사·겸사·이상정 개인의 상황 등을 전하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刪削하고, 전달하려는 요지가 분명한 중반부의 답문을 그대로 실었다. 다만 禮說, 『주역』 등 경전에 관한 다항의 질문을 비롯하여, 問目에 의해 「答李學甫『周易』筮疑」처럼 분량이 길어진 서찰은 중반부를 요약한 경우도 있다.

이상정이 李宗洙에게 보낸 서찰에서 『大山書節要』는 전반부를 남기고 후반부를 많이 刪削하였고, 『大山先生書節要』는 결미를 그대로 남긴 반면 서두의 도입부를

많이 刪削하였다. 안부와 인사가 주로 刪削된 전·후반부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일부 구절을 보면, 『大山書節要』은 『大山集』 수록 서찰의 순차를 따르며 전반부의 인사치레를 일부 남겼고, 『大山先生書節要』는 수신자를 향한 당부와 의견을 되묻는 후반부를 남겨 두기도 했다. 또한 『大山先生書節要』는 『大山集』 수록 서찰과 순차가 어긋나더라도 일부 서찰을 事體와 學理라는 별도의 기준으로 재편집하였다. 이에 『大山先生書節要』에 問目 내용이 刪削되지 않고 온전히 실린 일부 서찰은 학문의 진전과 참고를 위한 목적으로 편집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선대 書節要 체제의 계승과 嫡傳 의식의 표출

『朱子書節要』 이후 등장한 書節要類에서 『李子書節要』, 『退溪先生書節要』, 『大山先生書節要』의 발문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는 서찰 선정 기준²⁵⁾과 학통에 대한 嫡傳 의식의 표출이다. 이 書節要類의 발문을 쓴 영남 문인들은 書節要 편집에 이황의 학문 태도를 계승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절에서는 書節要 체제의 모방에 담긴 학맥 전승의 의미와 書節要 발문에 나타난 嫡傳 의식을 살펴려 한다.

鄭焜(1602~1656)이 편집한 『李子書節要』는 鄭之鍊(1693~1754)이 서문을 쓰고, 李蕃秀(1790~1849)와 許薰(1836~1907)이 발문을 썼다. 鄭之鍊의 서문으로 인해 서문이 누락된 다른 書節要類와 체제에서 차이를 보인다. 鄭之鍊은 이황을 동방의 주자로 표현하였고 재종조부인 益齋 鄭焜이 이황의 서찰을 가려 엮었음을 밝혔다.²⁶⁾ 李蕃秀는 鄭焜이 『朱子書節要』의 예를 따라 이황의 서찰을 엮었으므로 체제가 비슷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정혼의 학맥을 서술하면서, 정혼은 石門 鄭榮邦(1577~1650)의 長子이고, 鄭榮邦은 愚伏 鄭經世(1563~1633)에게 배웠으며, 鄭

25) 서찰 선정 기준이 “학문에 관련되고 일상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내용[關於學問·切於受用]”이라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다. 『朱子書節要』 수록 서찰의 선정 기준은 최재기, 앞의 논문 48면, 『李子書節要』 수록 서찰의 선정 기준은 심대용, 앞의 논문 32면, 『退溪先生書節要』 수록 서찰의 선정 기준은 김기엽, 김낙진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26) 鄭之鍊, 「李子書節要序」, 『李子書節要』, “我退陶李子, 卽東方朱子也. ……再從大父益齋公, 嘗節李子書爲若干卷.”

經世는 西厓 柳成龍(1542~1607)에게 배웠으므로, 이항의 학맥 연원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²⁷⁾ 이와 마찬가지로 許薰도 발문에서 정혼의 부친 石門 鄭榮邦이 鄭文壯 선생(정경세)에게 배웠고, 정경세는 柳文忠 선생(류성룡)의 문하에서 배웠다고 하였다.²⁸⁾

정경세가 있던 상주 지역은 이항의 直傳 제자인 류성룡의 문인들이 많았다. 1580년 류성룡이 상주 목사로 부임한 뒤로 향교에 나가서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유생들을 가르쳤으므로, 당시 상주 지역 문인에게 끼친 류성룡의 학문적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²⁹⁾ 정혼의 부친 鄭榮邦은 류성룡의 아들 修巖 柳軫(1582~1635)과 교유하였고, 함께 정경세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李蕃秀와 許薰이 밝힌 학문의 전승은 주희-이항-西厓 柳成龍-愚伏 鄭經世-石門 鄭榮邦-益齋 鄭焜으로 이어진다.

『退溪先生書節要』에 수록된 鄭宗魯(1738~1816)와 金垸(1739~1816)의 발문에도 학문의 연원과 그 전승에 관한 구절이 보인다. 鄭宗魯는 대산 이상정이 『朱子書節要』를 따라 『退陶書節要』를 만든 것이라 하고, 주자의 학문 연원부터 서술하여 주자가 위로 程顥·程頤의 학통을 계승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후로 이항이 주자의 嫡傳이고, 대산 이상정이 또 이항의 嫡傳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대산 문인의 嫡傳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³⁰⁾ 『退溪先生書節要』의 발문을 쓴 정종로는 정경세의 6세손으로, 이상정의 문인록인 『高山及門錄』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정종로가 이상정을 향해 존숭의 뜻을 드러낸 표현들은 그가 이상정의 문인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학통을 가학의 계승으로 본다면 그를 鄭道應-柳軫-鄭經世-柳

27) 李蕃秀, 「李子書節要跋」, 『李子書節要』. “退陶書節要一部, 卽益齋公所編, 而其義例, 蓋倣朱子書節要者也……鄭公諱焜, 崇禎處士石門公之張子也. 石門學於愚伏, 愚伏學於西厓, 陶山門下淵源端的, 其得於私淑者, 必有一副當真諦矣.”

28) 許薰, 「李子書節要跋」, 『李子書節要』. “益齋鄭公焜, 石門公之胤也. 石門公學於鄭文莊先生; 鄭文莊學於柳文忠先生之門, 公承庭訓, 淵源甚的……”

29) 김기엽, 「조선 후기 嶺南 學團의 학적 전승과 교유에 대한 자료적 고찰」, 고려대 박사논문, 2022, 76면.

30) 鄭宗魯, 『退溪先生書節要』, “右退陶書節要, 我大山李先生, 倣朱子書節要, 而爲之者也. 蓋朱子之學, 上承河洛之統, 而其載於大全者, 如地負海濶……退陶夫子, 以朱子之嫡傳, 取而節要之……先生又以退陶嫡傳, 任開來學之責矣……”

成龍으로 올라가는 학적 맥락에 두기도 한다.³¹⁾

金垞는 『退溪先生書節要』 발문에서 이황이 朱子書에 일생토록 힘을 쏟았기에 『朱子書節要』가 만들어졌고, 이는 대산 이상정이 『퇴계서절요』를 만든 뜻과 일치한다고 하였다.³²⁾ 이상정의 학맥은 密巖 李穡(1657~1730)-葛庵 李玄逸(1627~1704)-敬堂 張興孝(1564~1633)-鶴峯 金誠一(1538~1593)을 거슬러 올라가 이황과 주희에게 연결된다.

이황을 본받아 書節要를 편찬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황 학맥의 嫡傳을 자처하는 양상은 『李子書節要』와 『退溪先生書節要』의 발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李子書節要』와 『退溪先生書節要』 발문에서 각 書節要是 『朱子書節要』의 체제를 따랐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곧 『李子書節要』와 『退溪先生書節要』가 『朱子書節要』의 체제를 따랐기에 비슷한 구성을 보이는 것이고, 『李子書節要』와 『退溪先生書節要』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편집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

퇴계 학맥의 전승에서 『李子書節要』는 류성룡을, 『퇴계서절요』는 김성일을 학맥의 교량으로 삼아 이황에게로 학문 연원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후대의 퇴계학 맥에서 김성일과 류성룡을 둘러싼 지나친 嫡傳 의식은 향촌 사회에서 논쟁을 야기하였으나,³³⁾ 정종로가 書節要 편찬에 관여하면서 취한 입장은 갈등 조장이 아니라 중재와 절충적인 의도였다. 후대 문인 간 갈등을 논하기에 앞서, 류성룡을 사사했던 정경세의 6세손 정종로가 이상정이 편집한 『退溪先生書節要』의 발문을 썼고, 또 이상정의 서찰을 편집하여 『大山先生書節要』를 남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종로의 후손 정동철은 『大山先生書節要』 발문에서 『朱子書節要』와 『退溪先生書節要』를 이어서 정종로가 大山書를 절요하였으므로 전후로 그 공효가 같다고 서술하였다.

31) 우인수, 「입제 정종로의 사상과 문학 입제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내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109~132면.

32) 金垞, 『退溪先生書節要』, “退陶夫子, 一生用力於朱子書, 於是其有節要之編……大山先生之有退陶節要書, 亦此意也. 噫! 退陶夫子, 實承朱子之統, 而其言之載於書, 而傳於後者, 亦朱子之書也.”

33) 설석규, 「퇴계학파의 分化和 屏虎是非」,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311~371면.

퇴계 선생은 주자의 서찰을 취하여 요점을 초록하였으며[節要], 대산 선생은 퇴계의 서찰을 취하여 요점을 초록하였으니, 후학에게 은혜를 내려준 뜻이 아! 지극히구나. 지금 이 대산의 서찰 또한 퇴계 선생의 뒤를 잇기에 충분하고, 학문에 관련되고 일상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내용들이 벗·문인과 주고받은 서찰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고조부 立齋 부군(鄭宗魯)께서 두 선생(이황·이상정)의 뜻을 따라서 서찰을 줄이고 요약하였으니, 후학에게 은혜를 내려준 공로가 앞뒤로 똑같다.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³⁴⁾

정동철이 쓴 『大山書節要』 발문에서 ‘書節要를 편집하여 후학에게 은혜를 내려 주었다’는 투식은 앞서 편찬된 書節要類와 다르지 않다. 『朱子書節要』·『退溪先生書節要』를 각각 편집한 이황·이상정을 본받았음을 강조함으로써, 書節要를 편집한 선대 학자에 대한 존승 의식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곧 『大山書節要』 발문에서 선대의 두 서찰 선집과 공효가 같다고 한 것은 『朱子書節要』-『退溪先生書節要』-『大山書節要』로 이어지는 書節要 양식의 계승을 자부한 것이다.

4. 맺음말

옛 문인들은 서찰에 담긴 선현의 가르침과 태도를 따르고자, 존승하는 선현의 서찰을 가려 뽑아 選集으로 남겼다. 선대 학자의 서찰을 가려 엮은 자료 중 이른 시기의 『朱子書節要』는 후대 등장한 書節要類 체제의 典範이 되었고, 영남 지역에서는 이황의 서찰을 選取한 『李子書節要』·『退溪先生書節要』, 李象靖의 서찰을 엮은 『大山先生書節要』 등의 書節要類가 등장하였다.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大山 李象靖의 서찰 선집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필사본 12권 7책과 국립중앙

34) 鄭東輒, 『大山先生書節要』, 「大山先生書節要跋」, “故退陶夫子, 取朱子書而節要之; 大山先生, 取退陶書而節要之, 其爲嘉惠後學之意, 嗚呼至矣! 今此大山書, 亦足以繼退陶之後, 而關於學問·切於受用, 亦惟在於知舊門人往復書. 故我高王考立齋府君, 傲兩先生之意而節要之, 其有功於嘉惠後學, 前後同一揆焉, 豈不休哉?”

양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8권 4책이 발견된다.

立齋 鄭宗魯는 朱子書를 편집한 이황과 退溪書를 편집한 스승 이상정의 전례를 따라 大山書를 편집하였다. 정종로의 후손 鄭東轍은 1929년에 「大山先生書節要跋」을 지어 『大山先生書節要』를 편집한 이가 고조부임을 밝히고, 고조부 정종로가 이상정의 서찰을 가려 묶음으로써 선현을 계승하고 후대에 가르침의 은혜를 베푼 뜻을 기렸다.

鄭宗魯가 편집한 『大山先生書節要』는 약 111인에게 보낸 서찰이 280여 편 실려 있고, 編者 미상의 『大山書節要』는 112인에게 보낸 340여 편의 서찰이 실려 있다. 『大山書節要』의 서찰은 『大山集』의 편차를 따라 수록되었고, 『大山先生書節要』는 대개 권1~권5가 事體에 관한 서찰, 권6~권12가 學理에 관한 서찰로 분류되어 수록되었다. 두 書節要 자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李宗洙에게 보낸 서찰의 경우, 『大山書節要』는 李宗洙에게 보낸 서찰 34편을 『大山集』에 수록된 서찰의 순차대로 권5에 실었고, 『大山先生書節要』는 李宗洙에게 보낸 서찰 43편을 『大山集』의 수록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권2·권4·권6·권10에 나누어 실었다.

『大山先生書節要』와 『大山書節要』 두 書節要 자료는 대개 안부 인사·겸사·이상정 개인의 상황 등을 전하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刪削하고, 전달하려는 요지가 담긴 중반부의 담론을 그대로 실었다. 두 書節要에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여러 서찰이 조합된 ‘李宗洙에게 보낸 서찰’을 분석하여, 『大山書節要』는 『大山集』 수록 서찰의 순차를 따르며 전반부의 인사치레를 일부 남겼고, 『大山先生書節要』는 수신자를 향한 당부와 의견을 되묻는 후반부를 남겼음을 파악하였다. 물론 몇 편의 서찰로 書節要 전체의 절요 방식을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나 書節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신자의 서찰,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조합 양상을 보여준 서찰을 분석함으로써, 두 書節要 選取의 경향을 일부나마 엿보았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황의 『朱子書節要』 이후로 등장한 書節要類에서 『李子書節要』, 『退溪先生書節要』, 『大山先生書節要』의 발문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는 서찰 선정 기준과 학통에 대한 嫡傳 의식의 표출이다. 鄭焜이 편집한 『李子書節要』는 鄭之鏞이 서문을 쓰고, 李耆秀와 許薰이 발문을 썼다. 이들이 序·跋文에서 밝힌 학문의 전승은 朱

熹-李滉-柳成龍-鄭經世-鄭榮邦-鄭焜으로 이어졌다. 한편 『退溪先生書節要』에 수록된 鄭宗魯와 金垓의 발문에도 학문의 연원과 그 전승에 관한 구절이 보인다. 鄭宗魯와 金垓이 밝힌 스승 이상정의 학맥은 李裁-李玄逸-張興孝-金誠一을 거슬러 올라가 이황과 주희에게 연결된다. 이황을 이어 書節要를 편찬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황 학맥의 嫡傳을 자처하는 양상은 『李子書節要』와 『退溪先生書節要』의 발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정동철이 「大山先生書節要跋」에서 고조부 정종로가 『朱子書節要』·『退溪先生書節要』를 편집한 이황·이상정의 뜻을 따랐음을 강조한 것은 『朱子書節要』·『退溪先生書節要』·『大山書節要』로 이어지는 書節要 양식의 계승을 적시한 것이다. 서찰을 가려 엮으면서 앞서 書節要를 편집한 이황·이상정의 행적과 書節要의 체제를 본받은 것은 선현에 대한 존숭과 더불어 학문의 정맥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大山 李象靖의 서찰 선집을 발굴·소개하는 한편, 그 편찬 경위와 영남 문인의 書節要類에 나타난 학적 전승의 취지를 탐지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추후 宋時烈的 서찰을 엮은 『宋書節要』를 비롯하여, 서찰 선집의 다른 유형으로 ‘百選’, ‘書抄’라고 불리는 자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선집에 담긴 서찰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선현이 표방했던 겸양의 정신과 嫡傳이 가진 의미에 대해 한층 더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李象靖, 『大山集』, 『한국문집총간』 226~227집, 민족문화추진회.
_____, 『大山全集』(影印本) 卷4, 驪江出版社, 1990.
- 李象靖 纂, 『退溪書節要』 10卷 8冊, 국립중앙도서관(古367-227)
_____, 『退溪書節要』 10卷 10冊, 국립중앙도서관(古3648-62-956)
- 李野淳, 『廣瀨集』, 『한국문집총간·속』 102집, 민족문화추진회.
- 李宜哲 纂, 『尤庵先生遺書集解』 2卷 2冊,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1360-23)
_____, 『尤菴先生書節要集解』 20卷 10冊,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4198)
- 李庭魯 纂, 『退書百選』,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4-3)
- 李滉 纂, 『朱子書節要』, 국립중앙도서관(古1252-170-50, 한古朝17-89)
_____, 『朱子書節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3-135)
- 鄭宗魯, 『立齋集』, 『한국문집총간』 253~254집, 민족문화추진회.
- 鄭宗魯 纂, 『大山書節要』 8卷 4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古3648-62-983)
_____, 『大山先生書節要』 12卷 7冊, 한국국학진흥원(자료ID: 16650)
- 鄭焜 纂, 『李子書節要』, 국립중앙도서관(K3-114)
- 卮士玉水先生 纂, 信古堂藏板 『李退溪書抄』,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4-가127)
- 강진석, 「퇴계 《朱子書節要》 편집의 방법적 특징과 의의」, 『퇴계학보』 113, 퇴계학연구원, 2003, 51~94면.
- 김기엽, 「18세기 조선과 일본에서 편집한 이항 서찰 選集에 대한 一考察 - 退溪先生書節要와 李退溪書抄를 中心으로-」, 『藏書閣』 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182~212면.
- _____, 「조선 후기 嶺南 學團의 학적 전승과 교유에 대한 자료적 고찰」, 고려대 박사논문, 2022.
- 김낙진, 「이상정(李象靖)의 『퇴계서절요(退溪書節要)』 편집 방법과 목적」, 『퇴계학논집』 2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7~39면.
- 박대현, 「한문서찰의 격식 고찰」, 『대동한문학』 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설석규, 「퇴계학파의 分化와 屏虎是非」,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학 연구소, 2009, 311~371면.
- 심경호, 『간찰: 선비의 마음을 읽다』, 한얼미디어, 2006.
- _____,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 심대용, 「益齋 鄭焜의 《李子書節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7.
- 우인수, 「입제 정종로의 사상과 문학 입제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내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109~132면.
- 이상하, 「朱子書節要가 조선조에 끼친 영향」, 『퇴계학보』 132, 퇴계학연구원 2012, 5~38면.
- 최채기,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 논문, 201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 <https://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한국국학진흥원 : <https://search.koreastudy.or.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s://encykorea.aks.ac.kr>

■ 「부록」: 李象靖 書札 選集에 실린 수신자와 서찰 현황³⁵⁾

순번	『大山集』 수록 수신자 목록	『大山先生書節要』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大山書節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大山集』 권수
1	李懶拙齋(山斗)	○	권1(1편)	○	권1(1편)	권5
2	尹方伯(東度)	○	권1(1편)	X		
3	李方伯(彝章)	○	권1(4편)	○	권1(3편)	
4	尹侯(光紹)	○	권1(3편)	○	권1(3편)	
5	李顧齋(稹)	○	권7(1편)	○	권1(2편)	
6	權屏谷(槩)	X		X		
7	李訥翁(光庭)	○	권1(1편)	○	권1(1편)	
8	金齋山(聖鐸)	○	권1, 권5, 권7(합 3편)	○	권1(1편)	권6
9	權淸臺(相一)	○	권1, 권7(합 2편)	○	권1(1편)	
10	權江左(萬)	○	권1, 권5(합 2편)	○	권1(3편)	
11	鄭鳴皋(餘)	X		X		
12	李仲久(守恒)	○	권1, 권7(합 3편)	○	권1(3편)	권7
13	李日宣(德三)	X		X		
14	金仰女(泰濂)	○	권3(2편)	○	권1(1편)	
15	權孟堅(緘)	○	권5(1편)	○	권1(2편)	
16	曹仲吉(善迪)	X		X		
17	金士亘(紘)	X		○	권1(1편)	
18	金景玉(成胤)	X		X		
19	權仲容(紆)	X		X		
20	李學仲(周楨)	○	권3(1편)	○	권1(1편)	

35) 표의 수신자 목록은 고전번역원DB를 참고하여 한국문집총간 『大山集』 초간본에 수록된 서찰의 수신자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大山集』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大山先生書節要』와 『大山書節要』에서 모두 누락된 수신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수신자에 딸린 공동 수신인은 수신 여부와 편수를 ‘△’으로 나타내었다. 예컨대, 『大山先生書節要』에서 崔興遠·崔興漸·崔興建 형제가 공동 수신인일 경우에 崔興建 서찰의 수록 현황을(순번40) “권2(△1), 권3(△1), 권5(△2), 권9(1편)”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주 수신자 崔興遠의 서찰이 수록된 권2, 권3, 권5에서 崔興建이 공동 수신인으로 표기된 서찰이 각각 권2에 1편, 권3에 1편, 권5에 2편이고, 권9에 崔興建이 주 수신인으로 표기된 서찰이 1편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大山書節要』에서 崔興漸 서찰의 수록 현황을(순번 39) “권2(△5), 권3(2편)”으로 표기한 것도 주 수신자인 崔汝浩(興遠)의 서찰이 수록된 권2(15편) 중에 崔興漸이 공동 수신인으로 표기된 서찰이 5편이고, 권3에 주 수신자를 崔興漸으로 표기한 서찰이 2편 수록되었음을 나타낸다.

21	金亨彥(鼎燮)	X		X		
22	金重余(南應)	X		X		
23	金仲協(載應)	○	권3(1편)	○	권1(1편)	
24	李處士(宜翰)	X		X		
25	黃爾直(後鞞)	X		X		
26	李公燮(台煥)	○	권1, 권3(합 4편)	○	권1(2편)	권8
27	李欽夫(鶴遠)	○	권1, 권7(합 3편)	○	권1(3편)	
28	李景郁(馨遠)	○	권3(1편)	○	권1(1편)	
29	寧海諸表叔	○	권2(1편)	○	권1(1편)	
30	東坡諸表叔	○	권2(1편)	X		
31	權汝和(淳)	○	권7(1편)	X		
32	權希元(濂)	○	권7(1편, △1)	X	권1(2편)	
33	鄭可升(梯)	X		X		
34	李若天(象辰)	○	권2(1편)	○	권1(1편)	
35	黃養甫(頤重)	X		○	권1(1편)	
36	黃亨甫(泰重)	X		X		
37	金汝厚(堂)	○	권3(1편)	X		권9
38	崔汝浩(興遠)	○	권2, 권3, 권5(합 12편)	○	권2(15편)	
39	崔進叔(興翰)	△	권2(△2), 권3(△1), 권5(△2)	○	권2(△5), 권3(2편)	
40	崔立夫(興建)	○	권2(△1), 권3(△1), 권5(△2), 권9(1편)	○	권2(△3), 권3(1편)	권10
41	李天驢(仁堦)	○	권5, 권7(합 4편)	○	권2(5편)	
42	金退甫(樂行)	○	권2, 권3, 권5, 권8(합10편)	○	권3(13편)	권11, 권12
43	朴孝有(孫慶)	○	권2(1편)	X		권13
44	金虎卿(堦)	X		○	권3(1편)	
45	李定叟(守貞)	○	권8(1편)	○	권3(1편)	
46	李性中(命天)	○	권3(1편)	○	권3(1편)	
47	任重徵(必大)	X		X		
48	李大來(宜泰)	X		○	권3(1편)	
49	李彝卿(範中)	○	권2(3편)	○	권3(2편)	
50	權士安(正宅)	○	권5(1편)	○	권3(1편)	
51	金雲岩(翼溟)	○	권2(1편)	○	권3(2편)	

52	金光天(宇漢)	X		○	권3(1편)	권14
53	金元石(柱國)	○	권2(2편)	○	권3(2편)	
54	金溪法興諸戚	○	권2(1편)	○	권3(1편)	
55	李萬甫(憲國)	X		○	권3(1편)	
56	李周汝(元節)	X		X		
57	趙仁卿(普陽)	○	권3(1편)	X		
58	洪仲厚(載)	X		○	권3(1편)	
59	權浩源(濤)	X		○	권3(1편)	
60	李孟胤(世澤)	○	권2(1편)	○	권3(1편)	
61	李伯容(憲默)	X		X		
62	安百順(鼎福)	X		○	권3(2편)	
63	金灌以(江漢)	○	권3(1편)	○	권3(1편)	
64	金景潤(光雨)	○	권3(2편)	○	권3(1편)	
65	金聖文(光憲)	X		X		
66	申君暉(堽)	○	권2(1편)	X		
67	申景暉(堽)	△	권2(△1)	X		
68	朴順之(守梯)	○	권3(1편)	X		
69	金幼精(虎鍊)	○	권3(2편)	○	권3(1편)	
70	安而進(景漸)	○	권3(1편)	○	권3(1편)	권15
71	張伯宗(壽衡)	○	권2(2편)	○	권3(1편)	
72	曹直夫(德臣)	○	권2, 권9(합 3편)	○	권3(1편)	
73	都乃敬(吉諶)	○	권5(2편)	○	권3(3편)	
74	李君見(瑞龍)	X		X		
75	金夢弼(桂說)	X		X		
76	李來甫(真泰)	X		X		
77	鳳停寺會中	X		○	권3(1편)	
78	屏山書院洞主	○	권2(1편)	X		
79	權定卿(正綏)	X		○	권3(1편)	
80	金德中(龍普)	X		X		
81	金克夫(弼衡)	X		X		
82	黃■(宗夏)	X		X		
83	金景灑(光澈)	X		X		
84	申公■(光翼)	○	권3(1편)	X		

85	李澤仲(春濤)	○	권3(1편)	○	권3(1편)	권16
86	洪幼清(澄)	○	권3(1편)	X		
87	鄭理卿(重燮)	X		X		
88	鶴巖會中	○	권3(1편)	X		
89	鄭通伯(泓)	○	권3(1편)	○	권3(1편)	
90	李應瑞(奎祥)	○	권3(1편)	○	권3(2편)	
91	崔公普(周鏡)	○	권5, 권9(합 14편)	○	권3(14편)	
92	崔靜而(思鏡)	△	권5(△1)	△	권3(△1)	
93	崔以安(尙鏡)	○	권5(△1), 권9(1편)	○	권3(1편, △1)	
94	崔仲九(恒鏡)	○	권5(△2), 권11(1편)	○	권3(△2), 권7(5편)	
95	琴顯伯(東烈)	X		X		
96	權聞彥(德升)	X		X		
97	李道仲(弘辰)	○	권3(1편)	X	권3(1편)	
98	金行可(宗道)	X		X		
99	李持世(重維)	X		○	권3(1편)	
100	鄭昌伯(忠弼)	X		○	권3(1편)	
101	柳叔文(道源)	○	권3, 권5(합 3편)	○	권4(9편)	권17, 권18
102	柳叔遠(長源)	○	권2, 권3(△1), 권4, 권5(△1), 권9(합 5편)	○	권4(7편, △5)	
103	權景暉(炳)	○	권5, 권9(합10편)	○	권4(6편)	권19, 권20
104	李希道(象遠)	○	권6, 권10(합5편)	○	권4(6편)	권20
105	李夏瑞(宇鎭)	X		△	권4(△1)	
106	李學甫(宗洙)	○	권2, 권4, 권6, 권10(합42편)	○	권5(34편)	권21, 권22, 권23
107	金道彥(宗德)	○	권4, 권6, 권11(합16편)	○	권6(30편)	권24, 권25, 권26
108	金直甫(宗敬)	△	권6(△6), 권11(△2)	△	권6(△16)	
109	金景蘊(宗發)	X		X		
110	金弘甫(宗燮)	X		X		
111	徐尙甫(昌載)	○	권4, 권11(합2편)	○	권6(5편)	권27
112	徐正甫(昌鏡)	X		X		

113	權支國(以肅)	○	권4, 권11(합2편)	○	권6(5편)		
114	黃景初(啓熙)	○	권11(1편)	○	권6(1편)	권28	
115	金定之(鎭東)	○	권4(1편)	○	권6(1편)		
116	崔公獻(光璧)	X		X			
117	趙聖紹(述道)	○	권11(3편)	○	권6(4편)		
118	權峻明(燁)	X		○	권6(1편)		
119	李士吉(世迪)	○	권4(1편)	○	권6(1편)		
120	柳秀夫(溍)	X		X			
121	李日昇(鎭東)	○	권2(1편)	○	권6(1편)		
122	高淸叔(宇健)	X		X			
123	裴綱如(是珍)	X		○	권6(1편)		
124	申子長(體仁)	○	권4(1편)	○	권6(4편)		권29
125	金直甫(宗敬)	○	권4, 권11(합7편)	○	권7(12편)		권29, 권30
126	李稚暉(景溟)	X		○	권7(2편)	권31	
127	權其天(思浩)	X		X			
128	金士濬(崇默)	X		X			
129	李仲綬(經祿)	X		X			
130	金子河(中柱)	○	권4, 권11(합3편)	○	권7(4편)		
131	金行之(光裕)	X		○	권7(1편)		
132	申元明(昌毅)	X		○	권7(1편)		
133	金汝好(始全)	X		X			
134	柳井瑞(星休)	X		X			
135	金而栗(相寬)	X		X			
136	金訥甫(相敏)	○	권4(1편)	○	권7(1편)		
137	李景胤(祖範)	○	권4(1편)	X			
138	鄭士仰(宗魯)	X		○	권7(1편)	권32	
139	權匡伯(濟東)	○	권4, 권11(합4편)	○	권7(4편)		
140	金憲仲(章延)	○	권4(1편)	X			
141	琴聖玉(宗潤)	○	권4(1편)	○	권7(1편)		
142	朴聖輔(忠源)	X		X			
143	崔士毅(宇鎭)	△	권11(△1)	△	권7(△1)		
144	韓士凝(鼎運)	○	권11(1편)	○	권7(3편)		
145	金子野(垓)	○	권4, 권12(합2편)	○	권7(2편)		권33

146	金子厚(墩)	X		X		
147	崔士教(興學)	○	권12(1편)	○	권7(3편)	
148	黃樂善(最源)	○	권4(1편)	X		
149	申德順(昌道)	X		X		
150	李景顔(憲愚)	X		X		
151	張聖年(壽勛)	○	권4(2편)	○	권7(1편)	
152	李憲稷	X		△	권7(△1)	
153	權季周(訪)	○	권4, 권12(합2편)	○	권7(1편)	
154	金景蘊(宗發)	○	권12(4편)	○	권7(5편)	
155	鄭輝祖(堦)	○	권4(1편)	X		
156	或人	○	권4(1편)	X		
157	權信甫(必忠)	○	권4, 권12(합2편)	○	권7(2편)	
158	權无悔(以復)	○	권4(1편)	X		
159	黃子翼(敬熙)	X		○	권7(1편)	
160	黃稚見(龍漢)	○	권2, 권4, 권12(합3편)	○	권7(2편)	
161	李伯離(字綱)	X		X		
162	金弘甫(宗燮)	○	권4, 권12(합9편)	○	권7(2편)	권35
163	柳天端(範休)	○	권4, 권12(합5편)	○	권8(5편)	
164	柳龜瑞(玄休)	△	권4(△1)	○	권8(1편, △2)	
165	柳疇瑞(洛休)	△	권4(△1)	△	권8(△1)	
166	成孟悅(宗魯)	○	권4(1편)	○	권8(1편)	
167	李聖功(養正)	○	권4, 권12(합2편)	○	권8(2편)	
168	權季善(馨復)	○	권4(1편)	○	권8(1편)	
169	金晦彥(顯運)	X		○	권8(1편)	
170	金士瞻(斗運)	X		△	권8(△1)	
171	鄭景胤(光瑬)	○	권4(1편)	X		
172	崔士久(華鏡)	X		X		
173	趙公輔(友愿)	○	권4(1편)	○	권8(1편)	
174	權而恕(相宅)	○	권4(1편)	X		
175	金凝之(宗駿)	X		○	권8(1편)	
176	金士章(堂進)	X		△	권8(△1)	
177	金日章(慶進)	○	권12(1편)	△	권8(△1)	
178	金存仲(養久)	X		X		

179	安瓚如(瓚)	○	권12(1편)	○	권8(1편)	권37
180	權律之(禹度)	○	권4(1편)	X		
181	權士執(處中)	○	권4(1편)	X		
182	申紱爾(宅揆)	X		X		
183	金誠用(圭)	X		X		
184	權聖臣(達忠)	○	권12(2편)	○	권8(3편)	
185	權休伯(益禧)	○	권4(1편)	X		
186	權■(益章)	X		X		
187	金伯雍(熙民)	X		X		
188	金舜叟(熙奮)	X		X		
189	金叔明(熙洛)	X		X		
190	孫文瞻(奎東)	X		X		
191	柳擘如(晦文)	X		X		
192	權堧(思九)	X		X		
193	京中宗人	○	권4(1편)	○	권8(1편)	
194	權載運	X		X		
195	金玪	○	권12(1편)	○	권8(1편)	
196	家嚴	X		○	권8(1편)	
197	僉從叔	X		X		
198	伯兄(後淸)	○	권2(1편)	○	권8(1편)	
199	季弟休文(光淸)	○	권4, 권12(합4편)	○	권8(8편)	
200	再從弟孟休(顯淸)	X		○	권8(2편)	
201	再從弟仲則(師淸)	○	권4(1편)	○	권8(3편)	
202	仲休(夢淸)	X		○	권8(1편, △1)	
203	嚴齋諸從	X		X		
204	再從弟善述(述淸)	X		X		
205	兒 攄	○	권12(1편)	○	권8(9편)	
206	孫 永運	○	권2(1편)	○	권8(1편)	
합계			111인(공동 수신△ 포함 118인), 284편		112인(공동 수신△ 포함 121인), 337편	공동 수신 포함 206인, 620여 편

■ Abstract

A Study on Purpose of Daesan Yi Sangjung Compilation and Pupilship for Academic Steam Found in Seojeoryoryu(Summary of Letters) - Focusing on Daesansunsaengseojeoryo(大山先生書節要) -*

Kim, Gi-yeop**

The selected works by Daesan Yi Sangjung is found in 7 Books of Daesansunsaengseojeoryo(大山先生書節要) kept at the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and 4 Books of Daesanseojeoryo(大山書節要) kept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sed on the examples of Yi Hwang's compilation of works by Zhu Xi and Yi Sangjung's compilation of works by Yi Hwang, Jung Jongro complied the works by Yi Sangjung. Jung Dongchul, who is a descendant of Jung Jongro, wrote Daesansunsaengseojeoryobal(大山先生書節要跋) to clarify that Daesansunsaengseojeoryo was compiled by his great-great-grandfather, Jung Jongro. He also praised how Jung Jongro inherited the ancient sages and taught lessons to later generations. The Daesanseojeoryo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ntains the letters according to compilation order of Daesanjip(大山集). The Daesansunsaengseojeoryo of the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categories Daesanjip into logic and circumstance of matter and academic logic. The two Seojeoryo materials, including Daesansunsaengseojeoryo and Daesanseojeoryo, reduces the introductory and last parts which deliver greeting, modesty, Lee Sangjung's personal situation. Instead, they contai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B5A16056963)

** Research Professor, Youngnam Culture Inst. of Kyungpook Univ. / E-mail: sinchay@hanmail.net

the full discourse in the middle part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t points in the logic and circumstance of matter and academic logic. The postfaces of Yijaseojeoryo(李子書節要), Toegyeseunsaengseojeoryo(退溪先生書節要), and Daesansunsaengseojeoryo compiled by Yeongnam School's scholar commonly indicate the criteria for selecting specific works and Pupilship for academic stream of Yi Hwang. The Jung Jijip, Yi Sisu, and Heo Hun who wrote preface and postface of Yijaseojeoryo by Jung Hon described that Korean academic stream transmitted in the order of Zhu Xi, Yi Hwang, Yu Sungryong, Jung Kyungsae, Jung Youngbang, and Junghon. Meanwhile, in the postface of Toegyeseunsaengseojeoryo, Jung Jongro and Kim Goeng claimed that academic stream of Lee Sangjung transmitted in the order of Yijae, Yi Hyunil, Jang Heunghyo, and Kim Sungil and connected to Yi Hwang and Zhu Xi. In the postface of Daesanseojeoryo, Jung Dongchul described that Jung Jongro, who selected and compiled the works by Yi Sangjung, followed the ideas of Yi Hwang and Yi Sangjung who complied Jujaseojeoryo(朱子書節要) and Toegyeseunsaengseojeoryo. This showed that Jung Jongro inherited the formats of Seojeoryo found in Jujaseojeoryo, Toegyeseunsaengseojeoryo, and Daesanseojeoryo. The compilation by Yi Hwang and Yi Sangjung, selecting particular works, and adoption of Seojeoryo formats imply their reverence toward the ancient sages and guarantee of academic vein.

Key words : Letter, Seojeoryo(Summary of Letters), Yi Hwang, Yi Sangjung, Jung Jongro

논문접수일 2023.11.27. / 심사기간 2023.12.01.~2023.12.16. / 게재확정일 2023.12.27.